

유아의 개인 및 부모특성과 정서이해와 정서조절간의 관계

이 해 련* (경북대학교 강사)

최 보 가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본 연구는 유아의 개인특성 및 부모특성과 유아의 정서이해, 정서조절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유아의 개인적 특성(성, 연령, 기질)에 따라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에 차이가 있는가, 유아의 부모 특성(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정서표현성,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수용태도)에 따라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에 차이가 있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대구와 경북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4, 5세 유아 각 100명과 그 부모이었다. 유아의 기질, 부모의 양육행동, 정서표현성, 유아정서표현에 대한 수용태도 등은 부모용 질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은 부모용 질문지가 회수된 유아에 한하여 연구자가 개별적인 면담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정서인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에 대하여 유아의 정서이해능력 과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였다. 먼저 정서이해능력은 Garner 등(1994), Wintre 등(1990), Denham(1986), Denham & Couchoud(1990)를 기초로 자기정서이해와 타인정서이해를 측정하기 위한 상황을 각 정서유형마다 2가지씩 설정하였고, 유아의 정서조절은 Shipman 등(2001), Zeman & Garber(1996) 등이 개발한 면담방법을 수정보완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정서표현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을 각 정서유형마다 2가지씩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는데,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아의 개인특성과 부모특성에 따라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개인적 특성 중 유아의 성에 따라 정서조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는 여아보다 슬픔을 더 잘 조절하고, 여자는 남아보다 분노를 더 잘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아의 기질의 하위요인 중 반응성에 따라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더 반응적인 유아들이 타인정서이해와 분노조절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정서표현성, 그리고 유아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태도에 따라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더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며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유아들이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아의 긍정적인 정서발달을 위해서 애정적인 양육행동과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수용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